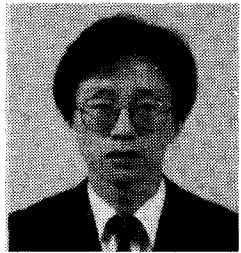


학술 기획

현대 철학에 나타난 인간관

중국 철학의 인간관

< II >



정지호
대학원사학과장

I. 중국철학의 특성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외견상으로는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매우 복잡하며 심각성을 띄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인간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창조적 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는 존재로서, 다시말하면 인간이 우주의 각종활동의 창조자요 참여자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철학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우주, 즉天和아울러 인간의 생존방식에 대한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인간에 대한 명제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철학의 특색을 살펴보면 크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주의는 공리적 인간관 사회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라고도 한다. 인간관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공리적 인간성에 기초하고 있다. 공리적 인간성이란 추상적이며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주의는 인도주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간은 본래 도덕적이며, 또한 인간의 사회생활은 도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도덕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를 표방하여 공리적 입장을 일체 배제하고 이에 따라 이상적 사회의 실현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주된 테마로 다루고 있는 중국철학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면서도 지극히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중국철학의 인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실주의적 인간관

현실주의는 인간의 현실상태를 직시하며, 철저한 공리관에 입각하여 인간을 파악한다. 또한 현실주의는 이상주의가 존중하는

문화나 전통을 배격하고, 초월주의에서 보이는 신비주의적 사고를 배격하고 실용실리를 높이는 합리성을 존중한다. 현실주의의 대표자로는 한비자를 들 수 있다. 한비자는 인간을 공익만을 추구하는 공리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은 상하·좌·우의 구별없이 모두가 대립·투쟁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한비자의 인간관은 그가 스스로 삼긴 순자의 성악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비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정치를 행하는데 있어서도 이상주의에서 추구하는 인의(仁義)를 배격하고 '자'와 '제'를 중시하였다. 그는 말하길 '영인(英人) 치도(治道)로 삼을만한 것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이익(利)이고, 둘째는 권위이며, 셋째는 이름(名)이다. 대체로 이익이란 백성을 얻는 까닭이요, 권위란 명령을 행하기 위한 까닭이요, 이름이란 위 아래가 같이 걷는 길이다'라고 하여 통치자가 이익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권위로써 그 의지를 수행하고 이름에 이르는 것으로써 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한비자는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인의라고 해도 실은 인간의 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유가와 같이 인의를 중시(宗師)로 하는 학치는 결국 민심을 오만하게 하여 화군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철학의 인식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는데서 시작된다

이와같이 현실주의는 공리적 인간성에 기초하면서 개인주의적 인간성을 배제하면서 사회적 인간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모택동의 이른바 계급적 인간성도 이런 부류에 넣을 수가 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현대의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성을 띤 인간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곧 부르주아나 지주계급과 프롤레타리아나 농민 등 2개 계급의 인간성만이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2개의 인간성 중 전자는 개인주의적으로서 부정되어져야 하고, 후자는 사회주의적으로서 지향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인간성의 분류방법은 주자가 인간의 성(性)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어 모든 선(善)의 근원을 전자에 돌리고, 악(惡)의 근원을 후자에 돌린 것과 일면 유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자가 말하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인간에게 본래 내재해 있는 것에 비해, 모택동의 사회주의적 인간성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추구하고, 부르주아에 대립·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택동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인간성과 사회주의적 인간성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개인주의적 인간성은 인민민주주의적 또는 사회제도에 의한 자기비판에 의해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역시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립된 개인을 부정하고 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역사적 인간으로 보았는데, 인간에 사회적·나아가 역사성을 부여한 점에서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인간관은 다소 유사한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모택동은 또한 사회주의의 인간성을 인민민주주의적 방법 즉 교육과 설득에 의해 선도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개조방법은 성악설을 주창했던 순

제에 대한 이해는 결국 법가와 마찬가지로 공리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이상주의적 인간관

이상주의는 인도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본래 도덕적이며, 인간의 사회생활은 도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도덕적 인간관·사회관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를 표방하여 현실주의에서의 공리적 입장을 일체 배제하고 이에 따라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상적 사회의 실현을 예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도의는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공의와

부터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 내재해 있는 고유의 것이라고 하여 인간본성의 선함을 강조하였다. 맹자에 이어 순자는 '예치론'의 근거를 들어 성악설을 제창하였는데, 그는 '인간의 성(性)은 악(惡)하며, 따라서 선(善)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고 하였다. 순자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利)를 좋아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이욕의 욕(欲)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성악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성(性)을 그대로 방임해 두면 사회에 규제를 할 수 없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인위적인 도덕률을 세워 이를 억제해야만 하여야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 인간관은 공리적이라고 하면서 현실주의로 향하지 않았던 것은 순자는 사람은 성악하여 도덕성을 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지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순자에 이르러 주돈이를 전두로 하는 신유가철학이 등장한다.

'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람의 쉼은 '사람이 그러한 소이의 연고' 즉 '인간이 그에 의해 인간이 될 수 있는 원인'이며 동시에 '사람이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의 법칙' 즉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인간 본래의 바른 존재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크게 구분하여 본연지성이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인의예지의 성(性)이고, 기질지성은 사람의 신체를 받는 성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연지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쉼의 개별적 존재로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갖고있지만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인하여 천리는 인욕의 사사로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

의 도덕적 과제였다. 이러한 점은 이상주의적 인간관의 최고의 목표인 것으로서 즉 인간은 현실의 생활에서 출발하



현대철학의 주요문제에 제기되고있는 인간존재의 의미와 세계와의 연관성등을 고찰, 현대철학의 사고영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I. 서양철학의 인간관...분석철학을 중심으로 II. 중국철학의 인간관 III. 맑시즘의 인간관

고유한 도덕적 직관력, 혹은 직관적 도덕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리주의적인 인간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에서 중시하는 도의를 무시하고 '자'와 '제'를 중요시하였으며, 또한 전통문화를 배격하고 감각적인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전체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현실주의는 또한 인간의 비인정성을 정당화하였으나, 각개인은 사회속에서 계속적으로 대립·투쟁하는 관계로 인식하였다.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비해 전통문화를 존중하였으며, 도덕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있다. 따라서 인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배제하며,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각 개인은 사회속에서 입실동체로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상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모델로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중국철학의 인식의 출발점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인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현대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IV. 글을 맺으며

이상 중국철학의 인간관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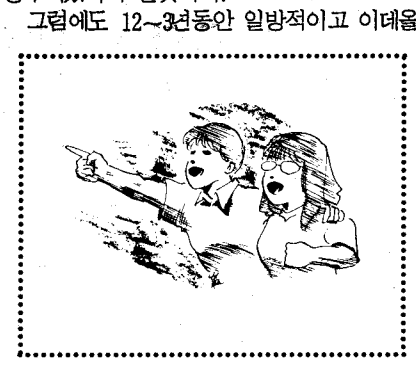
애국청년학생의 길



은 걱정을 귀히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말은 무엇을 일깨워주는가? 나에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몸이 없는데 이르러면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천령과 천황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글은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의 길과 영음의 성경(老子道德經)중의 한 문구이다.

노자의 이같은 문구는 비약인지 모르지만 우리조국의 분단현실에까지 생각을 미치게 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듯, 남을 그리고 모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며, 분명히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역사속에서 바로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독립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데서부터 비극의 세는 이미 일대해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분단후에도 우리민족의 통일과 동질성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12~3년동안 일방적이고 이대들



로거적 이질화의 교육을 받아온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청년학도가 고민하는것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기실 내면적으로는 분단교육의 심화라는 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관제교육에서 배우고, 경험해온 삶의 자세는 그릇되고, 왜곡된 '참고서적'의 삶이었다. 10여년동안 그러한 삶을 강요받고,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쉽게 떨쳐 버릴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올바른 삶의 전형을 창출·발전·계승·혁신하는 자세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건강한 삶의 자세 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길, '처음에 그 길은 길이 아니었다. 하나 한사람, 두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은 여러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노신의 말처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학생의 길은 누군가는 먼저 가야할 길이다.

물론 험하고, 여러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려는 끊임없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국고유 '처용무 氣功' 개발

— 특별기고...처용무기공에 관한 연구

지금 마산지방에서 발생하여 궁중에서 주었던 궁중무로 이조 성종때에 와서 는 격식이 보다 장엄해졌으며, 절차도 변화스럽게 되어 전래되는 한국 전통무이다.

이러한 처용무의 동작을 변형하여 한국고유의 기공으로 개발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처용무는 1971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지정된 한국궁중무용으로서 는 가장 오래된 유일한 남성가면무이다. 처용무를 기공적 효능이 있는 기공무로 개발하려는 이유는 처용무의 춤사위(動作)의 형태가 각종기공에서 보는 동작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은 데서 기인한다.

처용무는 처음에는 한사람이 추었던 것이 후에 2인에서 다시 5인으로

고정 방위색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대열을 갖추어서 추고 있으며, 그 동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5인이 모두 똑같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처용무는 오랜 역사의 변천속에서도 일관된 특징을 한가지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용의 용태(龍態)이다. 그 모습을 간추려 보면 가면에 나타나 있는 미소는 어질고 인품미가 넘치며, 균형정선 얼굴에는 풍부한 포용성과 감화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춤의 동작에 있어서 몸의 자세가 정대(正大)하고 위세가 당당하여

적인 행위와 동작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덕과 인자한 모습으로 감화시키고 승복시키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처용의 본 모습이란 것을 느끼게 한다.

처용무는 태극, 음악, 오행적 요소로써 구성되어 평간(排, 인, 角, 目)과 태극의 구도로써 성립되어 있으며, 춤의 전개과정은 궁중무용의 전형적인 기, 승, 전, 결의 사단계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처용무의 사상정미이란 단, 나한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양의학의 음행, 오행설에 기초

五方처용무의 원리 응용해 氣功동작으로 변형

확대구성되었다.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지는 신라시대 기록에 나타나듯이 발생설화를 가진 처용무는 그후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다시 조선으로 계승되어 궁중의 잡귀를 쫓는 의식무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연타무로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五方처용무로 확대 구성된 세 제종(1418-50)때이다. 五方처용무는 5인이 각각 동(靑), 남(赤), 중앙(黃), 서(白), 북(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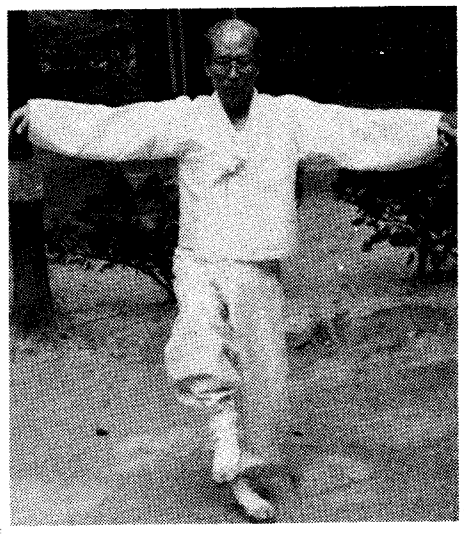
활기있는 움직임속에서는 패활하고 호탕한 기풍이 돋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에서 귀신을 쫓는 역할의 춤을 추었다고 하지만 음악은 화평하고 장대한 데다 무용수의 동작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귀신을 몰아내거나 들어오는 악귀를 강력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궁중향연에서까지 추었다 함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귀신의 율령을 인멸하여 보면, 귀신을 쫓는 수단으로 과상한 외모나 사실

이러한 태극원리로서 구성된 五方처용무는 바로 심성화무용이며, 본질적으로 한국적 태극무라 명명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처용무의 사적고찰과 무적체계등 전반적정황을 감안할때 양질의 기공무를 완성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또 기공적 의미의 소지도 무궁하리라 사려된다.

이런에 개발된 五方처용무氣功의 동작구성은 다음과 같다. 1.예비자세

- 1)姿勢 2)양손을 허리대고 右脚前後進 左脚前後進. 3)右手들어메고 右脚前後進 左手 들어메고 左脚前後進 2.前拜 4)앞으로 허리 구부리며 양손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두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허리에 붙이며, 뒷꿈치를 들고 놓는다. (2회) 3.三進 4.三方作隊舞 5.五方作隊舞 7)배꼽위에서 왼손으로 오른손 주먹을 감아싸면서, 오른손 윗위쪽으로 뻗어 올린다. (손바닥은 편다)오른팔은 구부러져 왼쪽무릎 높이로 올렸다가 내린다. (2회) 8)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9)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0)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1)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2)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3)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4)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5)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6)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7)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8)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19)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20)7)의 動作에서 양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위로 꺾고 옆으로 뿌리며 뒤로 내린다. (2회) 反復 反復 (중략)



태극적 원리로 구성된 五方처용무는 본질적으로 한국적 태극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같은 처용무기공(處容舞氣功)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실험을 통하여 객관화하고자 한다.

실험내용은 수련대상자를 10~20명 선정하여 처용무기공을 1월 1회 1시간씩 수련을 시키고, 수련전과 수련후 1~6개월간 일정간격으로 일반 검사로서 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 눈동자 온도, 시력 등과 혈액중 Lactate, Cotisol, IgA, G, M, Testosterone 등을 지표로 면역증감작용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의 효과기 입증되면 전국민의 일상 보건기공 제제로 보급될 수 있으며, 특히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의 보조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경중의학원 기공연구소의 협조와 물질양면의 지원이 요청되어 북경 기공연구소와 협력체계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위에서 고찰한 구성원리로서 처용무의 동작을 이십식(二十式)의 동작으로 구성하여 기공동작으로 만들었다.

새로 만든 기공을 처용무기공이라

김 광 호 <한의학연구소 예방의학>